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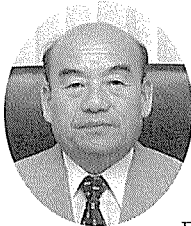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최근 국내에서는 국가 정보문화의 기본 인프라인 도서관에 대한 인식제고가 언론계와 시민단체에 의해서 날로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체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2006 서울 대회 개최가 몇 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의 도서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위상에 걸맞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도서관인들의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설문사항

- ① 귀하께서는 2003년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한도협 부산지구협의회
진도은 회장

① 급변하는 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재교육 및 연수기회를 골고루 배분하여, 도서관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의 기존 이용자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e-book, 인터넷 등 다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개관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기존 봉사방법 외에 작은 음악회나 공연 등을 유치하여 문화와 삶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

② 첫째, 학교 도서관담당교사·사서(직원)연수 세미나를 통한 담당직무 교육 및 일반교양 연수 둘째, 공공도서관·학회세미나·부산도서관연구회세미나 등에 격려 지원 셋째, "부산의도서관사" 출판 및 기념행사로 공공, 대학, 학교, 전문·특수도서관에 대한 이해심과 상호협력 촉진이다.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정해성 회장

우리 협의회는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사십년이 지나는 동안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어 지역 사회에 도서관의 중요성과 협의회 존재를 깊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행정 당국에서 인식하고 전국에서 가장 선두 주자로 23명의 사서교사를 임용하여 배치하였고 금년에도 경상북도에 11명 대구광역시에 11명의 사서교사를 임용하여 3월에는 우리 협의회에 정식 사서교사가 50여명에 이르게 되어 괄목할 만한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에 부응하여 금년에는 학교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도서관 사서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를 10월경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세미나는 학계와 현장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모여 발전적인 의견들이 교환될 것이다. 그리고 협의회 기관지인 『圖協』19집을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식의 대학 도서관 건물이 개관된다. 3월에 포항공과대학교 무은재도서관이 새로운 위용을 갖추고 개관을 할 것이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도 10월경에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개관할 예정인데 두 대학도서관의 신축과 리모델링 공법은 공간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들에게 새로운 도서관 건축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효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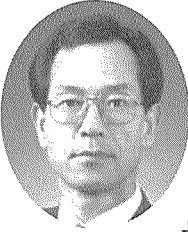
한도협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선남 회장

① 도서관의 미래상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총아인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 못지 않게 디지털화된 자료가 확충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지역평생학습관·평생교육기관 등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올 한해도 작년에 이어서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전망한다.

②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급 학교 교장·사서교사,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5월과 11월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사고력, 논리력 향상과 독서의욕 고취를 위하여 9월 독서의 달에 독서감

상문 공모전을 개최할 것이다.



공공도서관협의회

신현택 회장

① 정보통신과 IT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도서관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도서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들의 승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우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도서관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지역대표관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협력사업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내 학교, 대학도서관 등과의 연계 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특별연구위원회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계의 이론적·학문적 연구와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문제점을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토록 할 것이다. 유익하고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서울대회 개최 준비에 발맞추어 국제회의의 경험 습득 및 선진 도서관 운영실태 견학 기회를 확대하여 세계화·전문화에 따른 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최은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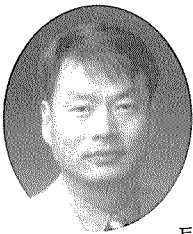
① 2003년의 도서관계를 전망하기에 앞서 올 해는 무엇보다도 지난 해에 마련, 공표된 도서관관련 주요 육성책과 활성화방안의 시행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즉 지난 해 8월 문화관광부가 확정·발표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그리고 11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확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가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게 것으로 대학도서관을 지식강국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더욱 그 기대가 크다.

② 첫째, 아카이브(Archive) 기능 강화 : 대학내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유형의 정

보나 지식을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납본제도를 유도하여 지식경영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을 구현함은 물론, 대학기록보존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컴퓨터와 정보관련기술,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사회에서 사서가 지식근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및 종합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과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생산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 특성화 방안 강구 : 개개 회원도서관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분야를 파악하고 회원도서관의 특성화부문을 유도하여 도서관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김성진 회장

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선배 도서관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도서관은 이제 정적인 기관에서 동적인 기관으로 탈바꿈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도서중심의 자료의 수집·보관·이용에서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저널, E-Book, Web DB등의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관리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외적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각 도서관들은 도서관을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내부조직을 재조직하여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변모하고 있다. 전문대학도서관들은 4년제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새로운 대학도서관문화의 창출에 힘쓰는 한해가 될 것이다.

② 본 협의회는 발족 8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토대 위에 새롭게 변모하는 한해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다 알차게 구성하여 회원교간의 각종 자료의 공유가 원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둘째,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전체적으로는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셋째, 회원도서관들의 긴밀한 유대감 조성 and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하여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인명록과 소식지발간을 추진한다. 넷째, 사서의 재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직무연수세미나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실행한다. 다섯째, 비회원교들의 회원가입을 위해 힘써 노력한다.

본 협의회는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들의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자세로 이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박윤기 회장

① 2003년에는 학생중심의 교육방법이 행해져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학습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도서관이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현재보다는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②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2003년 한해 동안 의학전문사서에 대해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할 예정이며 주제전문사서로서 의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임윤철 회장

① 문화관광부 주관 하에 추진된 1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이 2002년도에 마무리되면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2003년~2006년)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료실의 확장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금년도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른 도서관인들의 뜨거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 동안 도서관 정책의 핵심과제로 논의되어 온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도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 내에 해결해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② 금년도 서울시도서관연구회에서는 기존 분과위원회 외에 특별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도서관발전을 위한 특별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의 도서관 관련 연구회와 연계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특별연구위원회 운영 및 특별사업 과제 연구’ ‘선진 도서관 국외 테마 연수 지원’ ‘각 분과위원회(행정, 전산, 정리, 봉사)별 연구발표 및 토론’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다른 지역 연구회와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등반대회 개최’ ‘회원연구회지 제20집 발간’ 사업이다.



강원도도서관연구회

박광하 회장

① 2003년 한해는 그동안 침체되어 낙후되어 왔던 학교도서관이 정책적 지원과 관심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만큼 사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서업무교육 등의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눈부시게 발달해 온 정보화 산업에 힘입어 올해는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북사용 등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강원도도서관연구회에서는 도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 한해는 연구회의 자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해로 정하여 전문가, 교수 등을 초청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직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서관연구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찬회 및 체육대회 등 친목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제주도도서관연구회

김병호 회장

① 도서관 이용자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디지털자료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가 다양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도서관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② 첫째, 회원간에 정보를 공유할 분과 모임(예, 시·군청소속 사서 - 교육청소속 사서)을 결성하여 도서관간 정보공유 및 이용자 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하고 부족한 면은 세미나 개최 시 중점 논의할 계획임, 둘째, 연구회지 발간, 셋째, 도서관 연구회 자체 홈페이지 구축, 넷째,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회원관리 및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정해성 회장

① 금년 우리 도서관계는 지난 해 발표된 도서관 정책을 실현하

기 위해 관과 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해가 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심장인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TV 프로그램 “느낌표”를 통해서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할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조사 분석 연구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하겠다.

②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하여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창립기념 학술발표대회를 6월에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며 그 외 동계학술대회, 춘계 및 추계 워크숍 등 각종 학술 행사를 통하여 도서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개발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학술진흥재단 평가에서 우수한 학술지로 평가받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4권은 4회에 걸쳐 수록논문의 수를 늘리는 한편 본 학회의 학술상 심사 대상 논문으로 손색이 없도록 논문 투고 규정을 적용하여 명실공히 우수 학술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금년 3회를 맞는 학술상과 우수 논문상(제2회)은 연구자(교수와 사서)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올해 우리 학회는 전국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홍보하여 회원 배가운동을 펴는 한편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와 제휴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도서관운동연구회 김기문 대표

① 작년 한해 도서관계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현실은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다.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이라는 긴 제목의 계획(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도서관이 사회의 공적기관으로써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수의 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매스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책 읽기운동과 도서관만들기는 대중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서관계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임

기의 진정한 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② 지난 1월 신임 회장을 선출한 도서관운동연구회는 사업의 다각화와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정기 토론회에서는 이를 심도 깊게 토론하게 될 것이다.

상반기에는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지금까지 연구한 성과물을 중심으로 현장사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출판물을 만들어낼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사서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지성 회장

① 최근 모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리 방영중인 “기적의 도서관”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여파가 올 한해 크게 국민적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도서관계가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는 10년 전에 작은도서관운동으로 불기 시작한 독서운동이 1993년에는 책의 해가 제정되는 등 많은 활동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분들의 기억속에 사라져가는 즈음에 다시 불씨를 일으킨 격이어서 더욱더 뜨겁게 퍼질 것이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맞물려 2003년도는 “도서관의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② 첫째, 이념정립 : 사립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도서관의 설립, 운영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작은도서관운동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둔다. 둘째, 현황조사 : 사립의 단점 중 하나는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여 매 분기별 수시 현황 조사를 시행한다. 셋째, 네트워크 구축 : 현재의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www.4do.net”를 통하여 전국 작은도서관들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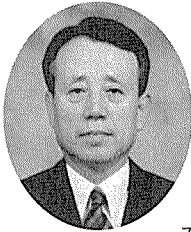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주영 이사장

① 지난해에 이어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한층 더 해 지리라 본다. 특히 초등학교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의 한 장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때 맞춰 방송매체의 관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이 더욱 활기를 찾을 듯 하며, 그 방향이 마을문고나 학교도서관처럼 마을단위의 공공성으로 가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다.

② 어린이도서연구회는 2003년도에도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독서문화운동을 하고 있다. 먼저 독서문화부문에서는 가정과 사

회, 학교에서 어린이에게 책 읽어주기 운동을 더 열심히 펼칠 것이며, 도서관문화부 문에서는 어린이와 책, 그리고 도서관에 맞추어 세미나를 준비하고 좋은 어린이도서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사서들을 위한 교육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고, 출판문화부에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어온 어린이책 베스트셀러를 분석하고 연구할 것이다. 좋은 어린이 책 목록을 계속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소외지역에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

한 성 택 회장

① 금년도는 "참여 정부"가 출범하는 매우 뜻 깊은 출발점을 맞이하여 우리 도서관계도 그 어느 해 보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식 기반사회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고,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적 기능을 갖는 도서관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도서관 정보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인식확산은, 각 종 매스컴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있어서도 점차 우선순위로 격상되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분야에 대한 긍정적 여건의 성숙은 기대를 갖게 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무의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사회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협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회의 조직구조를 발전적으로 정비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협회 조직 구성체인 각 지구협의회, 관종별 협의회 또는 협의체 등을 재조직하고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회활동의 기저는 회원 즉 조직구성체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긍정적 여건 성숙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협회를 중심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서 대학사회는 입학자원의 감소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변화로 인하여 대학교육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여 왔다. 따라서 학과특성화를 통한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그간 이를 위한 논의를 거듭한 바 다음내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내용의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 “전공코스제”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2년제 대학의 교육실정에 적합한 특성화교육으로써 실무사서교육, 전산처리 기술교육, 독서지도교육의 강화를 중심교육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넷째, 국가자격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특성화교육의 한 영역으로 그간 강화해 왔던 독서지도교육이 국가공인자격증과 연계되어 금년도부터 “어린이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승인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본 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창원대학이 주관대학으로 하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간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은 “어린이 독서지도사” 자격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증 취득 후 각 종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지도,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 적성교실,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 지원, 관련학습지도, 교습소, 공부방 등 개인 창업지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육연한의 3년제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졸업생들의 재교육사업과 이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 설문은 한도협 부산지구협의회장,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장, 한도협 광주·전남지구협의회장, 공공도서관협의회장,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장,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장,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장,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장, 한국작은도서관협회장,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대표, 학교도서관연구회장, 어린이도서관연구회장, 서울시도서관연구회장, 부산도서관연구회장,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광주사우회장, 광주빛고을사서회장,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경기도사서연구회장, 강원도도서관연구회장, 충청북도사서협의회장,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장, 전남공공도서관연구회장, 경상북도사서연구회장, 경남공공도서관연구회장, 제주도서관연구회장,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장,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상임대표, 지식정보공유협의회, 도서관매일링리스트 대표,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장, 문화관광부 장관(도서관박물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조정2과), 새마을문고중앙회장,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등 총 46곳에 보냈으며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